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S&P, 그리스·포르투갈 등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

- '10.4.27 국제신용등급기관인 스탠다드앤amp;푸어스(S&P)는 포르투갈과 그리스,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하면서 유럽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.
 - S&P는 포르투갈의 국가재정부채 통제능력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을 A+에서 A-로 2단계 하향조정했으며, 그리스의 신용등급도 BBB+에서 정크본드 등급인 BB+로 세 단계 강등함.
 - 이어 스페인의 신용등급은 기존 AA+에서 AA로 하향조정했는데, 이는 스페인 경제가 상당 기간 저성장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스페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임.
- 이번 S&P의 신용등급 조정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은 남유럽발 신용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미국·유럽 등 주요국의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이며, 안전자산 선호로 유로화 달러가 전일대비 1.6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 - 27일 주요국의 증시변화를 살펴보면, 그리스가 전일대비 $\Delta 6.0\%$ 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, 이어 포르투갈($\Delta 5.4\%$), 아일랜드($\Delta 4.5\%$), 스페인($\Delta 4.2\%$) 등의 순으로 하락세를 보임.
 -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국채금리(10년)는 전일대비 각각 9.69(+13bp), 5.71(+48bp)를 기록했으며, CDS 프리미엄(5년)도 전일대비 각각 824.5(+114.1bp), 383.0(+67.4bp)로 상승함.
- 국내 금융당국은 '09년말 국내 금융회사의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대한 익스포져는 총 4.0억 달러로 총 대외익스포져(528억달러)의 0.76%에 불과하다며, 이들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와 외화차입 규모가 작은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임.
 -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져는 총 3.8억 달러(대출 3.6억 달러, 지급보증 0.2억 달러)로 전액 선박금융과 관련된 것이며, 포르투갈의 익스포져는 유가증권 0.2억 달러에 불과함.
 - 또한 국내 금융회사가 그리스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0.25억 달러이며, 포르투갈에서 차입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(S&P의 그리스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관련,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외, 4/29)